

“받을 돈과 통?”… ‘파산 부인권’엔 안 통해



박 규 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사가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들을 위해 변제 재원이 될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을 최대한 회복시키려 한다. 이때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부인권’이다. 부인권은 ‘채무자가 파산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담보를 제공한 행위를 파산관재인이 소급해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권리’다. 대상은 재산을 없애버리는 ‘사해 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해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깨뜨리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여기서 사해행위(詐害行爲)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해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 또 편파(偏頗)행위는 채무자가 파산(또는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평등을 해치도록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담보 제공 등을 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ChatGPT

이익을 받은 수익자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므로, 수익자 스스로 “나는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부인권이 행사되면 수익자는 받은 재산이나 그 가액을 파산재단에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 수익자 입장에서는 “내가 파산관재인에게 돌려줘야 할 돈과, 내가 파산채권자로서 받아야 할 돈을 서로 상계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상계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진 두 당사자가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상에서도 “우리 서로 빚이 있으니 그냥 없던 걸로 하자”는 방

식이 바로 상계다. 상계가 허용되면 수익자는 굳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 사실상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변제받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 이를 명확히 차단했다. 파산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면서 원상회복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계를 허용하면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부인권 행사로 발생한 원상회복의무는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라는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한편 부인권의 효력은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파산관재인이 채권양도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채권양도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는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부인권 제도는 결국 파산채권자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누군가 먼저 빠져나가거나 몰래 챙기는 것을 막는 최후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법무법인 바른

소비자 일상 바꾸던 통신 경쟁의 빈자리



기자 수첩

조 민 선
(IT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3G)가 퇴장을 앞두고 있다. SK텔레콤은 2027년 말 종료로 목표로 LTE·5G 가입자 전환과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통신 기술의 세대 교체를 위한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통신업계의 다음 화두는 인공지능(AI)과 6G다. 성장 동력으로는 AI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기업용 AI 솔루션을 제시한다. 이동통신의 성장 정체를 기업 간 거래(B2B)로 돌파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일상을 바꿀 새로운 서비스 경쟁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 통신 기술 발전은 후발 사업자가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기회였다. KTF(현 KT)는 2007년 3G 전국망을 먼저 구축하고 전

용 브랜드 ‘SHOW’와 영상통화를 내세웠다. SK텔레콤도 영상통화 요금을 낮추며 대응했고 이는 망 구축과 요금 변화로 이어졌다.

2009년 아이폰3GS의 국내 도입은 통신시장의 경쟁 질서까지 흔들었다. KT가 아이폰을 단독 출시하자 소비자들은 공공 장소에서 와이파이로 인터넷에 무료 접속하고 앱스토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당시 통신사 네트워크를 비싼 값에 사용해야 했던 폐쇄적인 구조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지금은 혁신적인 변화보다 현상 유지에 가깝다. 넷플릭스,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와 제미니AI, 챗GPT 등 서비스를 요금제에 결합해 기존 가입자를 사수한다.

이는 단말기와 모바일 서비스의 주도권이 제조사와 플랫폼으로 넘어가면서 통신사의 차별화 수단이 줄어든 데 있다. SK텔레텍, K

TFT 등 계열사가 제조하던 단말기 브랜드 스카이, 에버 등은 인수합병 등으로 자취를 감췄고 이후 국내 단말기는 삼성전자와 애플로 좁혀졌다. 앱 다운로드가 가능해지면서 플랫폼의 역할도 커졌다.

고착화된 점유율 구조도 원인이다. 알뜰폰 시장의 성장과 대규모 해킹 등 대외 변수에도 20년이 넘도록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점유율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를 추진한 것도 요금, 서비스, 망 투자 등 측면에서 경쟁 심리를 불러넣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2024년 스테이지엑스의 5G 진입 무산은 중소 기업 자본력의 한계만 확인시켜 줄 뿐이었다.

과도한 경쟁은 시장 혼란을 낳는다. 그러나 출혈경쟁의 폐해를 막겠다고 경쟁의 순기능을 외면하면 각자의 몫을 지키려는 움직임만 남는다. 3G가 사라진 자리에 소비자의 일상을 바꿀 새로운 경쟁이 채워지기를 기대해 본다.

/msjo@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4일 (음 7월 1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혼자의 힘으로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60년생 친구에게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72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습니다. 84년생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길합니다.



소

49년생 헛된 욕심을 버리세요. 61년생 공연한 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겠습니다. 73년생 땅을 파서 금을 캐내니 마침내 형통할 운입니다. 85년생 집에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로랑어

50년생 어떠한 이유로든 이번엔 여행을 떠나세요. 62년생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74년생 좀더만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밀고 나가세요. 86년생 취업을 하려면 남쪽에 원서를 내세요.



도끼

51년생 화술이 뛰어나니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63년생 조바심이 날 수 있습니다. 75년생 구설수를 많이 듣게 되니 주의하세요. 87년생 오래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게 다가옵니다.



조

52년생 주위의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64년생 운의 흐름이 점점 좋아집니다. 76년생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88년생 지금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뱀

53년생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는 그 절개를 잃지 않습니다. 65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77년생 반드시 뜻을 이룰 것입니다. 89년생 저녁약속을 나그먼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

54년생 재물 운이 좋으니 사소한 계획도 성공합니다. 66년생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이롭게 합니다. 78년생 기본종은 하루를 보냅니다. 90년생 서두르거나 당황하면 손해를 봅니다.



양

55년생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67년생 당분간 환경을 바꾸지 말고 자중함이 좋을 것입니다. 79년생 노력의 대가를 얻게 됩니다. 91년생 주변의 유혹에 넘어가면 절대 안됩니다.



원숭이

56년생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68년생 여행은 피하세요. 80년생 가족이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92년생 급해도 신중히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닭

57년생 나의 뜻과 맞지 않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69년생 나아가려 할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형상입니다. 81년생 동방향이 길방입니다. 93년생 오래 가지고 있던 고민이 해결됩니다.



개

58년생 모든 것이 길합니다. 70년생 직장내에서 승진운이 있겠습니다. 82년생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의하세요. 94년생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면 병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돼지

59년생 일들이 조금씩 원만하게 풀려 나갑니다. 71년생 본업에 더욱 충실하는 것이 좋습니다. 83년생 본인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95년생 이성과 행복한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김상회의四季

오지랖과 상관

오지랖이 넓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그리 좋지 않다. 요즘 시대에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긍정적 표현이 아니다. 대개는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명리학에서 이런 성향의 사람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상관이다. 모든 상관이 오지랖이 넓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특징이 자주 나타난다. 큰 장점은 뛰어난 언변이다. 생각을 말로 풀어내는 능력이 좋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재주가 뛰어나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고 복잡한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표현도 잘 찾아낸다. 비즈니스 협상이나 영업 같은 분야에서는 이런 능력이 큰 장점이다. 상관의 장점은 뛰어난 말솜씨에서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특징은 주변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다.

어려운 지경에 처한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애쓴다. 이런 성향은 직업으로 이어질 때 빛을 발한다. 상담가나 교사, 변호사처럼 사람을 만나고 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학생을 가르치고,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 일은 상관의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다. 문제는 이러한 성향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듣는 사람이 지나친 참견으로 받아들여 경계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요즘은 개인의 사생활과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무례한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상대를 도와주려 했는데 오히려 거리가 생기고 좋은 뜻으로 시작한 행동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함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79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8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